

우리 나라 여성정보화의 현황분석과 정보화를 통한 여성 삶의 질적 변화전략에 관한 연구*

Strategie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Women's Life through Informatization

성균관대학교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
교수 김미량**

Dept. of Computer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 : Kim, Mi-Ryang

〈Abstract〉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various opportunities of women informatization, which we believe to be major contributors for the high quality of life for women. We first justify various efforts for women informatization, which needs to be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roblems and the status quo. We have also examined the related government policies and programs as well as the programs of non-profit organizations for woman, and identified key problems areas. Integrating the results from this analysis, we have developed the vision and the framework for women informatization.

We also give a list of strategic alternatives for improving quality of life through informatization, and promoting full-time housewives to become aggressive information users, information producers and information specialists. We use the expert Delphi method and fish-bone chart analysis to generate the priorities of specific tasks and target-based strategies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women informatization. We conclude this paper with various recommendations for empowering women to enjoy high-quality living through the process of informatization.

▲ 주요어(key words) : 여성정보화(women informatization), 삶의 질(quality of life), 전략(strategy), 정보격차(digital divide)

1.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도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인간생활의 전 영역에 혁명적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새로운 의사소통의 방법과 준비를 요구하고 있다. 즉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 공학과 인터넷 환경이 지식정보사회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만큼, 구성원들은 아날로

그 사회에서와는 달리 디지털 사회에서 통용되는 새로운 의사소통의 체계를 인지하고 습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정보화(informatization)'라는 새로운 도전이 구성원들에게 제기되고 있고, 구성원들의 원만한 정보화와 새로운 사회에의 신속한 적응을 위해 국가적 노력이 집약되고 있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제 2조에 의하면 '정보화'는 '정보를 생산, 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어떤 목적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의 집합'인 '정보'를 의식적으로 생산, 가공, 처리, 유통, 저장, 재생, 활용, 교류하는 활동을 통해, 일의 효율 촉진과 질적 개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보가 재화

* 본 연구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로 수행되었음

** 주저자 : 김미량(mrkim@comedu.skku.ac.kr)

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보화'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 정보화의 결과, 우리는 정보의 창조적 생산과 선점, 더 나아가 정보를 지식으로 가공, 재생산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보다 질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을 지닌 정보화의 과정은 다각적 측면에서의 제 지원과 개인의 집중적 노력, 인식의 전환, 태도의 변화, 시간의 투자 등이 요구되는 만큼, 추진체제의 '계획적 변화(planned change)'를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도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Cyber Korea 21'이라는 국가 정보화계획을 중심으로 정보화에 대한 국가적 노력이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형태로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핵심인 여성 삶의 질적 변화에 초점을 둔 여성정보화 측면에서는 소외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주부가 한 가정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된다. 비록, 최근들어 국가의 집중적 노력 덕분에 정보 리더십 수준에서는 괄목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정보화가 단순히 정보 리더십 능력을 구비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상기한다면 상당수의 여성은 여전히 정보화의 소외집단으로 남아 있다. 1998년 이후로 정부가 여성이 더 이상 정보화에 소외되지 않도록 여성정보화에 관심을 갖고 여성정보화교육에 예산을 집중투자하여 여성의 정보화수준이 상당 부분 개선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 여성정보화의 거시적이고 일관된 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아 투자한 제 노력에 비해 비용효과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이 새로운 사회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 적응하지 못하고, 국가 발전의 중심에서 외면된다면, 특히 고급인력으로서의 잠재력이 있는 여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된다면, 이는 여러 측면에서 매우 큰 손실일 뿐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로 성장해 나아가는 데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미 우리 앞에 다가온 새로운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여성 스스로 보다 강력한 능력을 획득하여 준비하는 적극적 태도가 요구되며 사회와 국가는 이러한 여성의 자체적 노력을 안내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협조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여성 삶의 질적 변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정보화에의 당연한 요구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나, 나라마다 고유한 정보화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은 전 세계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도록 요구하나 그 방법은 각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이나 구성원의 태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IT강국인 미국의 경우는 여성정보화에 대한 별도의 노력을 시도하기보다는 전 국민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성 보장에 초점을 두고 정보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같은 동양권 문화를 반영하듯 여성

정보화에 대한 별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최근 정보화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팽배해 지면서 'IT Japan'을 위한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유럽은 유교적 영향이 강한 아·태 권역의 국가들에 비하여 여성정보화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중이다(정숙경, 2000). 유럽 국가들은 남녀 정보화의 차이가 적은 편이며 적극적인 여성정보화의 노력으로 여성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북미, 중남미, 아시아, 유럽, 서유럽 지역의 여성정보센터들은 지역별, 국가별 연계를 통하여 전 세계 여성정보 서비스체제를 구축중이며, 인터넷을 통한 여성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여성정보 서비스를 중시하고 있다. 또한 여성정보화를 통해 여성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 광범위한 분야에 그들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정보화촉진기본계획(1996-2000) 이후 'Cyber Korea 21'이라는 국가사회정보화 중장기비전을 수립, 추진하여 국민 모두가 함께 하는 지식정보강국을 건설하고자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확충하는 등 국가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 '여성'을 타겟으로 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한 여성인력 양성사업과 주부 100만 인터넷 교육, 노동부에서 실시한 여성실업자 훈련, 또 교육부에서 실시한 여학생 정보화 능력 신장사업, 보건복지부의 여성사회교육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일단 여성정보화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고 저변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 양적 확산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정보화와 비교해 볼 때 여성의 정보화는 아직도 질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정보화'가 여성에게 가져다 줄 새로운 기회와 도전,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또 가정에서의 위치나 영향력,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을 고려할 때 여성정보화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화' 과정이 여성 삶의 질적 개선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과 대안을 모색해 보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여성정보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보다 부각시켜 여성정보화 노력을 정당화하고,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정부부처 및 여성단체의 여성정보화 정책과 사업현황을 살펴보고 제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여성정보화의 비전과 기본 방향을 제시한 뒤 주요 추진과제와 세부 실행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료의 수집을 위해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국내외 여성정보화 관련 선행 연구 및 자료들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집하여 여성정보화의 현황 및 실태를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정부부처 및 여성단체의 정보화관련시책에 관한

자료도 수집하여 우리나라 여성정보화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다. 여기에 또한 여성정보화 관련 전문가들과의 면담 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를 가미하여 여성정보화 전략추진을 위한 12대 과제와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현실적으로 이 많은 과제를 한꺼번에 실시한다는 것은 예산이나 시간, 인적자원 등을 고려할 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과제의 중요도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과제수행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영역마다 제시되는 과제가 해당 영역에 적절한지, 또 제시된 과제 중, 어떤 과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또 그 중요도는 어떠한지를 전문가 의견을 통하여 검증·분석하였다.

정보화관련 정책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관련분야의 연구논문을 발표한 경험이 있는 26명의 정보화 분야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여 12대 추진과제의 우선순위, 각 세부과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설정하도록 의뢰하였다. 12대 과제 및 추진과제의 최종우선순위는 각 전문가가 제시한 순위의 점수를 역순으로 점수화한 뒤 평균값을 구하여 이용하였다(예를 들어 모두 12개의 과제가 주어질 경우 1순위는 12점, 2순위는 11점, 3순위는 10점을 부여함).

각 과제마다 제시된 세부과제의 중요도는 5점 척도로 중요도를 합산하여 그 경중의 위계를 결정하였다. 세부과제의 경우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같이 체크하도록 요청한 것은 다소 그 목적이 다소 중복되는 감이 있다. 대개의 경우 추진과제가 중요하면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같은 영역에 세부과제의 수가 많은 경우 중요도의 체크는 쉽지만 우선순위의 설정은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

이 두 항목을 설정한 것은 중요도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과제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켜 우선순위 설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도 숨은 의도이다. 물론 이론적으로 중요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아니다. 중요하지만 예산이나 수행시간상의 제약으로 당장 실현되기 어려운 과제는 전문가에 따라서는 우선순위가 낮게 표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부 추진과제의 구조화 과정에서는 단계별 분석방법인 피쉬본(Fish-Bone) 차트를 이용하였다. 기업의 품질경영분야에서 불량원인의 계통적인 조사를 위해 1940년대 일본의 이시가와교수가 개발한 이 차트는 이시가와圖 또는 원인-결과분석도(cause-effect diagram)라고도 불린다. 본 연구에서는 이 차트의 구조를 다소 수정하여 과제의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목적으로 사용하며, 우선순위가 높을수록 차트의 머리부분에 가까이 위치하도록 한다.

II. 여성정보화의 개념 및 필요성

1. 여성정보화의 개념

여성정보화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여성정보화를, '여성이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서 정보화되는 과정(즉 어떤 목적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의 집합인 정보를 의식적으로 생산, 가공, 처리, 유통, 저장, 재생, 활용, 교류하는 활동을 통해, 일의 효율 촉진과 질적 개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보가 재화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통하여, 고용창출 및 적극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여성 개인의 삶이 질적으로 변화, 개선될 뿐 아니라 나아가 사회, 국가의 발전에도 공헌하는 양성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정보화에 대한 시각을 다소 좁게 본다면 여성정보화는 여성정보화의 추진 목표를 중심으로 정의될 수도 있다. 즉 여성정보화는 적극적인 정보활용자로서의 여성, 창조적인 정보생산자로서의 여성, 전문적인 정보직업인으로서의 여성을 양성해내는 여성인적자원개발의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다. 이 협의의 정의는 무엇보다 여성 자신이 정보화과정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질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정도에 따라 개인이 정보활용자로서, 정보생산자로서 또는 정보관련분야의 전문가로 설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는 여성 개인의 정보화를 국가가, 사회가, 또는 가족이 협조하고 도와줄 수는 있으나, '정보화'는 여성 스스로가 얼마나 오랜 시간과 노력, 의지, 에너지를 투자했는가에 따라 그 정도가 결정되는 지식기반의 과정이므로 정보화의 수준과 질은 결국 전적으로 여성 개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2. 우리나라 여성정보화 수준과 정보화의 필요성

2001년 3월, 여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가 발족하면서 우리나라에 더 이상 여성부가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천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화'가 아닌, '여성정보화'를 위한 별도의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땅에서 여성의 입지가 얼마나 미약한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여성들의 정보불평등 문제는 여성개인과 가정생활에서의 불편함 차원을 벗어나 여성들의 인권문제까지도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한국전산원, 2000). 인간 사회의 형성 및 유지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과 공헌을 고려해 볼 때 사회구조적으로 여성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관심은 매우 부족하고 능력있는 여성인력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쉽게 경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여성의 정보화 수준은 과연 어떠한가? 국가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정보격차(digital divide)에 대한 문제가

강력하게 대두되면서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그 일환으로 '여성'의 정보화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여성정보화에 대한 필요성은 최근 한국정보문화센터 및 한국전산원 등의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여러 조사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여성정보화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자료들을 추출, 비교, 분석해 보면 여성정보화를 위한 기반 환경 조성의 정도를 유추, 판단해 볼 수 있다. 특히, 1988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총 9회에 걸쳐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보생활 및 정보화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한국정보문화센터(<http://www.icc.or.kr>)가 제시하고 있는 여성 관련 자료들을 참고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남녀간의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률 비교

(단위 : %)

구분	1999년 5월			2000년 5월			2001년 4월		
	남	여	차	남	여	차	남	여	차
컴퓨터 이용	46.4	29.2	17.2	58.7	41.9	16.8	78.6	65.2	13.4
주부이용률		10.9			21.4			49.4	
인터넷 이용	21.6	8.7	12.9	45.1	28.8	16.3	71.8	57.8	14
주부이용률		1.8			11.0			42.0	

<표 1>, <표 2>를 참고해 보면 최근 3년간 여성, 특히 주부의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률이 점차 신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점차 남녀간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과 주부의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의 정도가 급격히 신장되었다는 점이다. 한 예로 1996년 여성의 인터넷 이용률은 1.4%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미미했으나 5년후인 2001년에는 57.8%로 전체 여성의 반 이상이 인터넷을 활용할 정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주부의 이용률이 2000년에서 2001년 사이에 급격히 신장된 것은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지원해 온 주부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이 상당한 공헌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컴퓨터 이용의 주 목적

(단위 : %)

구분	문서 작성	오락/게임	교육/학습	PC통신	인터넷	자료관리	개인정보
남성	57.0	68.2	34.9	35.7	80.1	41.7	41.7
여성	48.6	55.7	42.7	30.3	78.8	28.3	19.6
주부	37.8	46.4	40.3	23.5	79.2	18.3	14.1

출처 : 한국정보문화센터(2001), 2001 국민정보생활 및 격차현황

그러나 주부의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률이 급격히 신장되었다고는 하나, 주부집단이 농/임/어업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양적 증가

가 얼마나 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단순히 일회적, 일과적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추수활동이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는 비중있게 검토되어야 할 측면이다.

<표 3>의 소프트웨어 이용률을 살펴보면 여성과 주부가 교육 및 학습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과 비교하여 데이터베이스나 프로그램개발과 같이 다소 전문적인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록 여성 및 주부의 컴퓨터 이용률이 증가되었으나 전문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주변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여성정보화가 주력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서 여성전문인력개발의 필요를 강력히 시사하는 측면이다.

더불어 여성들의 생활정보화의 정도를 살펴보면 일상생활에서 개인 정보 관리 및 금전 관리는 여전히 전통적인 수기(手記) 방식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고, 상품 구매도 인터넷 쇼핑보다는 직접 찾아가는 방문쇼핑의 비율이 높고, 은행 송금방법 역시 자동입출금기 사용이 시간상으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가서 처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국가정보화백서, 2001).

<표 3> 소프트웨어 이용률

(단위 : %)

구분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 시트	프리젠테이션	데이터베이스	그래픽/음악	통신/인터넷	유틸리티	프로그램 개발	게임/오락	학습/교육
남성	87.7	52.9	32.5	21.2	61.2	81.9	43.7	12.7	81.2	46.1
여성	86.0	44.2	23.8	14.5	55.2	78.2	25.1	6.5	73.2	51.5
주부	83.6	38.9	14.8	13.3	50.2	77.4	22.6	5.6	67.1	51.1

출처 : 한국정보문화센터(2001), 2001 국민정보생활 및 격차 현황.

이는 인터넷의 보급과 확산으로,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정보화가 매우 다양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나 아직까지는 일반 가정생활을 주도하는 여성의 의식이나 생활양식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지 않음을 짐작하게 해 주는 측면이다.

피상적으로 보면 정보화 관련 분야는 상대적으로 기계적 관심이 부족한 여성에게 두려움과 무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나, 의외로 이 분야가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치밀함, 자유로움과 더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 고급 여성 전문인력이 필요한 영역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 관련 기술에 힘입어 흘러져 있는 여성관련 자료를 정보화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교류, 활용하게 하는 네트워크의 구축이라는 단순한 개념차원을 넘어서서, 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여성정보로 구축하고 이들이 이러한 정보를 다양한 필요에 따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교육함으로

써,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이 정보화의 결과, 정보소양능력 및 활용능력을 갖게 되면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 기반환경에서 시·공을 초월하여 수행가능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적 직업환경에 국한하지 않고 '과제' 중심의 사이버 작업환경에서 전문적인 일들을 수행할 수 있어 특히 일인다역을 해야 하는 여성에게 매우 유리한 기회가 제공될 수도 있다. 여성정보화를 위한 노력이 단순히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의 정보화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사장되어 있는 여성 고급인력을 재교육함으로써 새로운 고용창출로까지 확대, 재생산된다면 여성 개인은 물론 그를 둘러싼 주변인, 사회, 국가적으로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이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 사회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와 흐름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학교와 같은 공식교육기관을 떠난 이후 재교육의 기회가 없는 여성의 경우 자녀나 가족과도 대화가 단절되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다. 이는 사회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는 혁명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성원 또한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예상외의 고독과 소외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정보 격차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고 사이버 공간은 또 하나의 세상으로 존재하며 별도의 언어와 의사소통 방법, 경제활동의 판도까지도 바꾸어 놓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문화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 경험해야 할 필요는 충분하다.

따라서 여성정보화 추진의 기본방향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잠재력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또 디지털 기반의 지식정보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여성이 보다 양질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i) 여성 스스로가 정보활용자로서의 적극성을 가지고 정보를 탐험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필요가 있고, ii) 정보활용의 단계를 넘어서서 창조적인 정보생산자, 정보제공자로 거듭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공유의 원칙을 경험하며, iii) 자신만의 전문성을 개척해 낼 수 있다면 부족한 전문인력을 양성,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의 의지와 적극성의 정도에 따라 고용창출 및 부업 등 경제활동과도 연계되는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III. 정부부처 및 여성단체의 여성정보화정책과 사업현황

국내 여성정보화 정책 및 사업은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제정으로 본격화되면서 1997년 제 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이 발표되었다. 이 계획은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고 국가와 사

회발전이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6대 기본전략과 20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 중 <표 4>에 수록된 3개 과제가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하여 여성의 경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성정보화 과제에 해당된다.

<표 4> 여성정책기본계획

기본전략	20대 여성 정책과제	정보화 세부 과제
법·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	1.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 법·제도 및 의식의 개선	① 여성정보체계 구축 ② 여성관련DB 구축 및 국내의 여성계와의 연계체계 구축 ③ 여성 대상 정보교육 프로그램 실시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제 확립	8. 여성전문인력의 적극적 양성	④ 여성에 대한 정보화 교육 지원
	9. 여성의 평생교육 지원	⑤ 여성 사회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 보급 ⑥ 여성사회교육관련 자료 공유할 수 있는 정보망 구축

이러한 여성정보화과제는 여성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주로 수립된 것으로, 그 동안 정부 각 부처별로 여성정보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대표적으로, 여성정보화는 재택근로제의 확산을 위한 정책, 양성평등적 교육과정운영, 이공계에 대한 여학생 문호확대, 여성정보화인력양성교육확대, 시민(여성)단체의 정보화운동지원 등으로 실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정보화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의 여성정보화교육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여성정책 담당 부서가 있는 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등의 상호 협조와 국가적 지원 하에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적 노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상호연계 하에 이루어져 왔는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등을 그 사업의 현황과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각 부처별로 실시해 온 여성정보화 관련 사업들, 교육내용 및 결과, 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향후 개선 방향 등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내용들은 2000년 여성특별위원회의 정책자료 및 기타 관련 정책자료를 참고하고 담당부처의 실무진들과의 인터뷰를 거친 뒤 연구자의 주관적 의견을 가미하여 정리한 것이다.

1.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여성정보화 관련 사업은 여성정보화 교육지원사업과 주부 100만 인터넷 교육사업이다.

여성정보화교육지원사업에서는 섬세하고 감성적인 여성의 역

량을 발휘하기에 적합한 S/W, 게임애니메이션 등 정보통신부문에서 여성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분야에 주력한다. 한국정보문화센터의 주관 하에 여성인력개발센터(구 일하는 여성의 집), 한국걸스카웃연맹 등 여성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H/W, S/W 등 정보통신 기자재 구입을 지원한다. 강사료, 통신비 등 운영비는 교육기관 자체가 충당하도록 되어있다.

정보화교육의 실제적 성과로 나타나는 수료생들의 자격증 취득과 취업률을 살펴보면 교육과정 이수생들의 해당분야 자격증 취득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서울 14개 지역 가운데 극소수로 나타남), 수료 후 취업률은 텔레마케터 양성과정을 제외한 다른 과정은 매우 저조하다.

주부 100만 인터넷 교육은 '주부'를 정보화 소외계층으로 판단하고 초보적이고 형식적인 내용으로 주부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PC 기초교육, 정보검색, 인터넷 홈쇼핑 등 단순한 입문적 수준으로 양적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성의 매체활용능력 및 정보활용능력 신장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여성을 소비자로 전제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다. 교육의 효과라면 주부들이 컴퓨터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자녀들의 컴퓨터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주부들의 정보화 마인드가 확산되었다는 것과 교육 후 주부들의 전자상거래 이용률이 증가하는 등 컴맹 상태의 주부에게 정보접근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교육 후 여성이 지속적인 교육을 원하더라도 그에 대한 후속적인 대안이 없어 단계적, 심층적인 교육이 되지 못한다는 점과 내용에 비해 교육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수강생들의 개인차나 고급 프로그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정재영 외, 2000).

2. 노동부

노동부는 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여성정보화교육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여성가장실업훈련사업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을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 운영해 왔으나 여성부 출범이후 '일하는 여성의 집'을 '여성인력개발센터'로 개칭하고 관련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였다.

여성가장 실업자훈련과정은 대체로 인터넷 비즈니스 창업과정, 텔레마케터, PC활용, 컴퓨터 방문교사, 컴퓨터 오퍼레이터, 컴퓨터 속기사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여성가장의 개별 특성과 능력을 고려한 후속 교육 프로그램의 미비로 교육결과,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을 하는 비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교육부

교육부는 잠재적 여성인 여학생의 정보화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컨대 정보화 경시대회, 인터넷 정보 사냥대회, 프로그래밍 대회, 홈페이지 공모전 등을 통해 여학생의 컴퓨터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컴퓨터 활용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여성정보화를 위한 특별한 교육내용을 마련하기보다는 교육정보화를 통해 여학생의 정보화 교육을 유도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여 여학생들의 정보화에 대한 관심과 정보관련 능력을 신장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 지원으로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을 위해 방과후 또는 방학중에 학교 컴퓨터실습실을 개방, 활용하도록 하는 등 교육정보화로 구축된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

교육부의 여학생정보화 사업은 대체로 잠재적 여성인 여학생에게 정보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정보화 마인드를 심어 줄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왔으며 정보화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거나 여러 관련 행사들이 일회적, 전시적일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어머니컴퓨터교실과 같은 프로그램이 체계화된 교육내용의 미비, 비용의 부족, 강사문제, 시간의 부족 등으로 운영상의 여러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자녀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정보화에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타부처와의 연계를 통한 적극적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999년 여성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사회교육정보 DB를 구축하여 여성사회교육 관련기관간의 체계적인 정보교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요자와 관계기관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데 공헌한 바 있다. 또한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교양, 기능, 의식교육 등)을 마련하여 여성의 사회화 및 사회교육에 유용한 도움을 제공하고 그 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여성의 사회참여에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애인 대상의 정보화교육을 확대하여 장애인 대상의 특수 H/W 및 S/W를 개발, 보급함으로써 여성장애인 또한 이러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공헌이 있다.

그러나 제공되는 사회교육프로그램이 수요자의 요구와 일치하지 않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교육기관간의 정보교류가 활성화되지 않아 교육 수요자들의 광범위한 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는 직접적인 여성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부

치는 아니나 여성정책을 주관하는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설치되어 있고, '여성과 공직'이라는 큰 주제를 내걸고 여성의 공직 참여 확대와 남녀평등문화 확립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여성정보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성이 정보화를 통해 그 삶의 질이 개선되고 나아가 양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여성의 정보이용능력을 신장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사회 전반적인 환경을 조성해 간다는 차원에서, 여성의 공직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행정자치부가 향후 여성정보화교육으로 양성된 여성 인력들이 활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성의 취업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공헌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행정자치부가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확대하는 지역정보화를 주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시·군·구, 동사무소 등에 정보화교육장을 확충하여 전업주부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여성정보화의 기반환경 제공이나 교육의 확대에 일조하고 있는 측면으로 평가된다.

6. 법무부

법무부는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남녀가 평등한 건강한 사회를 앞당기겠다는 취지 아래, 여성정책담당관실 주관으로 여성정책을 기획, 종합하고 여성의 인적자원을 개발하며, 남녀차별의 금지 등 여성의 권익 향상과 남녀 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여성정보화의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처는 아니나, 법무부 역시 행정자치부와 마찬가지로 정보화 능력 신장 사업으로 양성된 여성 인력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여성의 권리를 신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나아가 여성재소자 또한 여성정보화의 대상이므로 그들의 직업훈련과정에도 정보화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새로운 출발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7. 농림부

농림부는 국가정보화 시책에 부응하여 교육받을 시간조차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인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농업인들의 특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는 측면에서 여성정보화가 벤치마킹할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집합교육도 기초교육, 중급교육, 전문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차별화하고 있고 방문교육의 형태로 농업정보 119, 이동버스교육 등의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인정보화교육은 해양수산부와와

로 어업인을 포함한 농어업인정보화교육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부처간 공조체제는 타부처에도 확대되어야 할 모범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정보소외계층으로 구분되는 농업인들에게 정보 접근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화를 확산하는 데 공헌하였고 농업인들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정보화 교육기기가 탑재된 이동 버스를 운행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정보화 교육의 기회를 갖게 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 규모가 아직은 미흡하고 지속성이 부족하며 여성 농업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현재 농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협소하게 진행되는 농림부의 사업 내용만으로는 농촌 여성의 정보화능력을 개별적으로 신장 시키기엔 부족함이 있으므로 관련 부처간의 협조와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국가의 정보화노력이 소외계층에 대한 보다 특별한 배려와 관심으로 나타나야 하는 측면을 고려할 때 농촌 여성의 정보화에 대한 지원은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8. 기타부처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여성정보화와 관련된 정책과 관련 부처의 사업 현황을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설치되어 있는 부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외에도 전 국민의 정보화가 국가의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하는 만큼 타 부처의 정책에서도 정보화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고 여성 또한 주 대상이 된다. 예컨대, 산업자원부의 직장인 정보화교육(직장여성), 해양수산부의 어업인정보화교육(농림부와 공조), 국방부의 군장병 정보화교육(여군포함), 재정경제부의 민간 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예산청의 각 부처 정보화교육 예산 지원 등 정부 각 부처가 나름대로 전 국민의 정보화에 공헌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9. 민간 여성단체 및 기관의 정보화 지원

민간 여성단체 및 기관의 정보화는 각종 민간단체, 대학교의 사회교육원, 언론사, 백화점 등의 문화센터,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컴퓨터 교육장, 사설 컴퓨터학원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민간 여성단체의 활발한 움직임은 그 동안 여성의 정보화를 주도해 온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으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교정의, 1999).

정부 또한 정보문화운동협의회(<http://www.icm.or.kr/>)를 통하여 1998년부터 여성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단체의 정보화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컴퓨터교육, 문화행사, 정보화의식교육 등 여성들의 정보화의식제고와 정보통신기술이용능력행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정보문화운동협의회의 재정적, 인적 지원

의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다(한국여성정보원, 1998).

1998년부터 실시해 온 여성정보화 관련 대표적인 사업의 예로는, 소비자 보호단체협의회 소비자 정보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교육,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여성단체실무자 정보화교육, 한국여성정보인협회의 여성정보화를 위한 인터넷 교육,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의 청소년의 컴퓨터음란물 습득방지 순회교육 및 캠페인(이상 1998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의 학부모 컴퓨터교육, 한국여성단체연합회의 '99 사이버 여성문화공모전, 한국여성정보인협회의 여성정보화를 위한 인터넷 교육, 한국여성민우회의 정보통신공간 여성자리 찾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전자상거래의 여성참여활성화를 위한 여성소비자 정보화교육(이상 1999년), 여성민우회의 여성들이여, 인터넷에서 놀자,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의 어머니 이메일 갖기운동 및 자녀와 이메일 편지쓰기 대회, 한국여성단체연합회의 2000 사이버 여성문화 공모전,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의 우리도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다(이상 2000년) 등과 같은 다양한 사업들이 민간주도로 추진되어 왔다(참조 <http://www.icm.or.kr/>).

2001년에는 정보문화운동협의회가 38개 단체, 41개 사업에 대해 총 4억6천5백여만원의 규모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http://www.icm.or.kr/>), 각 영역별 지원사업 중, 여성정보화와 관련있는 내용만을 선별하여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정보문화운동협의회의 민간단체
여성정보화관련 지원사업 현황(2001)

영역	단체명	사업명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사이버여성인권운동을 위한 지역 여성정보화교육
정보의 생활화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가족사랑 이메일 편지쓰기 대회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엄마와 함께하는 인터넷: 인터넷교육 학부모 교안집 개발 워크샵
건전정보 사회 만들기	한국 여성민우회	네티즌이 즐거운, 게시판 여론문화 만들기
	한국 여성정보원	사이버성폭력추방을 위한 여성정보사냥대회 및 체험수기공모 사이버 백일장

IV. 우리나라 여성정보화의 문제점 분석

2001년 12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추진되어온 여성정보화 관련 다양한 정책 및 사업들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투입된 제 노력에 비해 비용효과적이지 못한 여러 문제들을 노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정책의 중점과제를 시행하는 정부 6개 부처의 여성정책담당관실을 비롯, 여러 중앙 행정부서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여성관련 단체, 기업,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여성정보화를 위한 노력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어

이러한 제 노력들을 총괄하면 양적으로는 해외의 그 어느 나라보다도 여성정보화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가히 선도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내실있게 진행된 프로그램들도 있겠으나 대체로 소요된 예산과 사업의 목적 등에 비해 성과가 뚜렷하게 가시화되고 있지 못하고(물론 성과를 운운하기에는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 여성의 고용창출이나 사회적 활동에 효과적인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전반적인 사업 수행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발전적인 의미에서 여성정보화에 대한 국가의 의지와 전국민적 노력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내기 위해 해결해 나가야 할 대표적인 문제들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여성정보화 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한 비전 및 거시적 전략의 부재

우리나라 여성정보화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비전과 추진목표, 거시적 전략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국가 정보화의 비전 하에 이와 긴밀한 공조체제 하에 연계성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 여성의 정보화가 독립적으로 추구하고 지향해야 할 별도의 비전과 전략이 차별화되어 제시되지 못함은 여성정보화의 의미를 매우 퇴색시키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정보화의 존재와 필요를 강력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비전과 거시적 전략들이 조속히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2) 여성정보화 정책의 추진체계 및 전담조직, 세부과제 발굴 노력 등의 미비

여성부의 출범으로 향후 여성부가 여성정보화 추진의 중심세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아직은 여성정보화에 대한 체계적 추진체계를 확립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성의 대상별 요구에 준하여 보다 조직적인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의 정비가 시급히 요청되며 이를 위한 실행 세부과제를 발굴, 실천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3) 정보화 관련 정부 각 부처간의 공조체제 결여

정부 각 부처에서 유사한 사업을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사업이 중복되고 상호 공조가 부족한 경향이 있다. 여성의 정보화는 비단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므로 정보화 관련 정책의 부처간 협조 및 실무진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전제로, 부처간의 유기적인 공조체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각 부처에서 여성정보화와 관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유형, 그 추진 정도, 성과, 개선방향, 한계 등에 대한 총체적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4) 여성정보 체계화 및 콘텐츠의 빈곤

가상 공간에 너무도 많은 정보가 넘쳐흐르고 있다고 하더라

도 여성정보의 One Stop Total Service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민(民), 산(産), 연(研) 등의 자발적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기는 하나 여성정보가 무엇인지, 또 여성관련사이트에서 어떤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진정으로 여성이 얻고 싶은 정보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아직까지는 여성정보의 포탈화, 체계화가 정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관련 체제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수익모형을 창출하기 어려워, 예산 및 관리인력에의 부담으로 독립적, 지속적 운영이 어렵다. 제공되는 콘텐츠의 측면에서도 그 내용이 독창적이지 못하고, 여성들에게 유익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풍요롭지 못한 문제가 동시에 노출되고 있다.

5) 정보화교육 내용의 질 문제

현행 교육사업은 교육을 통해 여성인력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화된 계획이나 비전이 없어 질적으로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정보화교육의 성패는 여성 개인의 다양한 요구와 관심, 이해의 정도가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교육에 반영되는가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여성을 위해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부족과 교육 및 교육기관의 비전문화는 여성정보화의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여성정보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과정에서 여성정보화만의 특성화, 차별화, 전문화, 다양화, 표준화への 시도가 재삼 요구된다.

6) 여성 스스로의 인식 문제

여성정보화는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정보화의 최종 대상인 '여성' 스스로의 인식과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정보화への 의지는 있으나 '시간이 없어서'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없고 정보화への 소외계층으로 남아있는 것은 결국 여성이 정보화를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실제로 요구되는 여러 역할로 인해 절대적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나 그 필요와 중요성을 충분히 지각하고 있다면 이는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문제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7) 여성관련 단체 및 조직의 중복 및 협조체제 미비

우리나라에 약 4000여 개 이상의 여성관련 단체가 존재하고 있고, 그 이후로도 여성문제에 관심을 갖는 새로운 조직이 계속 출범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관련 단체간의 정보화への 노력 또한 중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사조직이 서로 유사한 교육의 프로그램을 구성, 제공하거나 양적 팽창에 의존적인 프로그램들을 운영함으로써 여성정보화 교육의 특성화를 추진하지 못하는 물론 관련 유관기관간의 협조체제의 미비로 교육이후의 취업알선이나 고용창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8) 여성정보화에 대한 총체적 평가 및 연구의 미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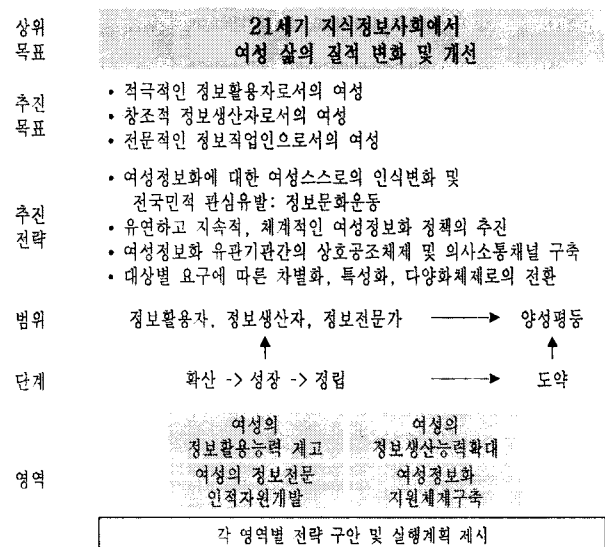
평가의 의미가 질책이나 악의적 비평이 아니라면 건설적 의미에서의 평가는 어떤 활동의 질적 개선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반성적 과정이다. 그럼에도 여성정보화 정책 및 사업전반에 대한 총체적 평가가 부족하고 정책 집행의 방향을 안내하는 연구적 노력이 매우 미진한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문제들을 종합해 보면 보다 효과적, 효율적인 여성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 우선 여성정보화의 비전이 제시되어야 하고 여성정보화 고유의 필요성과 특성화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정부 각 부처가 개별적, 산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관련 정책들의 중복을 피하고 여성정보화への 거시적 목표를 공유하여 여성정보화への 성공적 확산을 위한 유기적 협조체제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V. 우리나라 여성정보화への 비전과 기본방향

1. 여성정보화 추진과제

앞에서도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여성정보화 추진의 기본방향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잠재력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또 혁신적으로 변화한 디지털 기반의 지식정보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여성이 보다 양질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림 1> 우리나라 여성정보화への 방향(제안)

이를 위해서는 개인 여성이 자신의 상황과 주체적 선택에 따라 정보활용자로서, 정보생산자로서, 또는 정보전문가로서의 목표를 설정하고 각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성장, 정

립, 도약될 수 있도록 자기주도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더불어 국가는 정책 추진의 중심체로서 일관되고 지속적인 방향성을 견지하되, 관련 민, 산, 학, 연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적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여성정보화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틀은 이후 제시될 주요 추진과제 및 세부 실행 전략을 안내하는 상위차원에서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틀 안에서 <표 6>과 같이 여성정보화의 12대 추진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 과제들은 적극적인 정보활용자로서의 여성, 창조적인 정보생산자로서의 여성, 전문적 정보직업인으로서의 여성, 여성정보화 지원체제 구축의 4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과제들은 선행연구를 비롯, 본 연구의 과정에서 추출된 세부과제들을 망라하여 전문가 델파이 과정을 통해 검증된 과제이다.

<표 6> 여성정보화의 4대 영역 및 12대 추진과제

4대 영역	12대 추진과제
적극적인 정보활용자로서의 여성	1. 여성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 2. 여성 생활 정보화 촉진 3. 여성 정보 공유체제 확립
창조적인 정보생산자로서의 여성	4. 여성정보화 교육의 특성화 5. 여성의 정보생산활동 효율화
전문적인 정보직업인으로서의 여성	6. 여성 친화적 전문 직종 개발 7. 여성 정보전문 인력 양성
여성정보화 지원체제 구축	8. 법·제도 및 정책적 지원 9. 사회문화적 지원 10. 정보인프라 구축 및 체제적 지원 11. 인적·물적 지원 12. 연구 및 평가 지원

2. 여성정보화 12대 추진과제의 우선순위 집계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여성정보화 12개 과제는 26명의 정보화 분야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거쳐 우선순위가 설정되었다.

12개의 추진 과제 중 1순위는 여성정보화교육 특성화 과제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여성의 정보화마인드 확산, 여성 정보전문 인력 양성, 여성 정보생산활동 효율화, 여성 정보공유체제 확립 등이 타 과제에 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판명되었다. 반면, 연구 및 평가지원, 인적·물적 자원관련 과제가 최하위를 차지했으나 이러한 지원관련 과제는 비단 여성정보화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보화영역에서 공히 선행되어야 할 과제들이므로 여성정보화를 위한 정책추진의 우선권은 당연히 상위 3대 과제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표 7> 12대 과제 우선순위

목 표	12대 과제	우선순위 평균	최종 우선순위
정보 활용자	1. 여성의 정보화마인드 확산	7.65	2
	2. 여성 생활정보화 촉진	6.39	7
	3. 여성 정보공유체제 확립	7.30	5
정보 생산자	4. 여성정보화교육 특성화	8.83	1
	5. 여성 정보 생산 효율화	7.39	4
정보 전문가	6. 여성친화적 전문직종 개발	6.17	8
	7. 여성 정보전문 인력 양성	7.52	3
지원 체제 구축	8. 법, 제도 및 정책적 지원	7.13	6
	9. 사회문화적 지원	4.96	10
	10. 정보인프라 구축 및 체제적 지원	5.87	9
	11. 인적, 물적 지원	4.83	11
	12. 연구 및 평가 지원	2.96	12

3. 3대 주요추진과제의 세부 실행과제 내역 및 우선 순위

앞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3대 과제를 실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부 실행과제를 개발해야 한다. 실제적으로 12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전문가 델파이의 적용과정에서 이미 각 대 과제에 대한 세부실행과제가 개발되어 이 내용도 전문가들에게 같이 제시되었다. 이들 전문가들은 대 과제의 우선순위 뿐만 아니라 세부실행과제에 대한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 3대 중요과제에 속하는 세부실행과제들에 대한 상세한 결과만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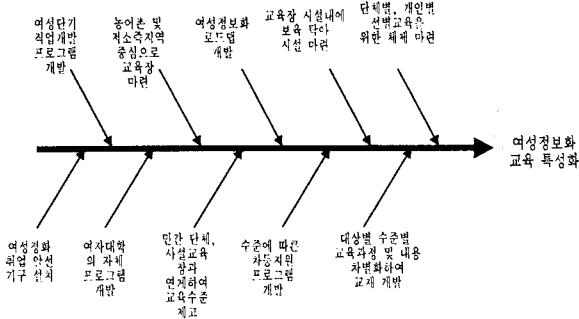
각 과제마다 제시된 세부과제의 중요도는 Likert 5점 척도(점수가 클수록 중요도가 높음)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우선순위는 세부과제수만큼 1부터 12까지 기록하도록 하였지만 본 대과제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세부과제는 순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였다. 각 전문가가 체크한 중요도는 합산하여 그 경중의 위계를 결정하였으며, 우선순위는 제시된 순위의 점수를 역순으로 점수화하여 집계하였다.

1) 여성정보화교육 특성화

여성정보화 교육특성화 과제에는 <표 8>과 같이 13개의 세부 추진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과제는 필요한 내용과 수준을 선별하여 교육받을 수 있는 체제 마련으로 교육의 커스톰이징에 관한 것이며 두 번째도 대상별, 수준별로 차별화된 교재를 개발해야 하는 과제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들 모두 여성정보화 교육의 명확한 차별화에 초점이 있는 과제들이다. 또한 교육장 시설 내에 보육·탁아 시설 마련이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중요도는 1위), 이는 어쩌면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정보화에 관심이 없는 여성들이라도 보육·

탁아 시설의 마련은 상당한 유인요인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우선순위 상위 10개 실행과제를 피쉬본차트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여성정보화 교육 특성화의 세부 실행과제 피쉬본 차트

<표 8> 여성정보화 교육특성화 과제의 분석결과

번호	세부과제명	중요도의 평균	중요도의 순위	우선순위의 평균	우선순위의 순위
1	기초교육에서 많은 부분을 심화교육으로 전환	3.46	11	4.69	12
2	여성정보화 교육 로드맵 개발	3.69	6	6.35	5
3	일반 교육에서 여성 특성화 교육으로 전환	3.64	8	5.16	10
4	대상별 수준별로 정보화 교육과정과 내용을 차별화하여 교재 개발	4.00	2	7.40	2
5	여성정보화 선도 강사 자격증을 수여하여 여성정보화 교육 담당자로 재투입	3.50	10	5.23	9
6	여성 단체별, 개인별로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여 교육받을 수 있는 체제 마련	3.96	3	9.12	1
7	교육장 시설 내에 보육·탁아 시설 마련	4.40	1	6.54	3
8	농어촌 지역의 정보화 교육 지원 차원에서 컴퓨터 교육장은 농어촌 및 저소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마련	3.52	9	5.88	7
9	민간 단체, 사설 교육장과 연계하여 교육 수준 제고	3.69	6	5.96	6
10	아파트나 마을 단위로 정보화 기기가 탑재된 이동 차량을 운행하여 교육	3.15	13	3.42	13
11	여자대학이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체 프로그램 개발 및 공유	3.31	12	5.54	8
12	여성사회교육 기관 활성화	3.77	5	5.04	11
13	수준이 향상될수록 수강료 대폭 지원하는 차등지원프로그램 개발	3.96	3	6.42	4

이에 반해 기초교육에서 심화교육으로의 전환, 여성사회교육 기관 활성화, 일반 교육에서 여성 특성화 교육으로 전환, 정보화 기기가 탑재된 이동 차량 운행 등 그 목표가 다소 불명확한 과제들의 우선순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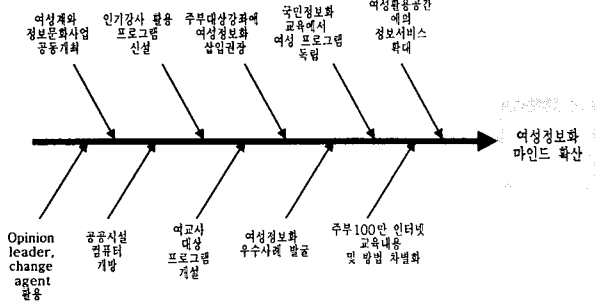
2) 여성의 정보화마인드 확산

여성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이라는 과제에는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두 12개의 세부 추진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 영역에서는 여성활용공간에 인터넷 프라자와 같은 정보서비스 확대, 주부100만 인터넷 교육내용과 방법의 차별화, 국민정보화교육지원사업에서 여성대상 독립 프로그램운영, 여성정보화 우수사례발굴 등 여성정보화를 위한 공간 및 교육내용의 커스터마이징에 관한 세부과제의 우선순위가 높았다. 이에 반해 각종 행사위주의 사업은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여성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의 세부과제분석결과

번호	세부과제명	중요도의 평균	중요도의 순위	우선순위의 평균	우선순위의 순위
1	여성정보화우수사례발굴, 홍보	3.58	6	6.27	4
2	주부대상강좌에여성정보화삽입권장	3.65	4	5.96	5
3	여성정보화관련전국세미나 기획, 개최	2.69	12	2.81	12
4	인기강사활용프로그램 신설	3.35	9	5.69	6
5	국민정보화교육지원사업에서 여성대상 독립 프로그램운영	3.40	8	6.32	3
6	여교사대상정보화교육프로그램개발	3.69	3	5.69	6
7	백화점/문화센터등의민간여성정보화강좌에 세금감면 등의 혜택 부여	3.08	11	4.04	11
8	은행, 대형할인마트 등 여성활용공간에 컴퓨터설치, 개방, 인터넷플라자같은정보서비스 확대	3.85	1	7.38	1
9	각 지역구청, 동사무소, 경찰서 등 공공시설의 컴퓨터 개방	3.58	6	5.38	8
10	Opinion leader, Change agent 활용합	3.28	10	4.28	10
11	여성계와 정보문화사업의 공동개최	3.64	5	4.44	9
12	주부100만 인터넷 교육내용과 방법을 여성에 맞게 차별화	3.73	2	6.96	2

이 결과에서 특이한 것은 여교사 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의 중요도가 3위로 나타났지만 실제 우선순위는 중간 정도인 6위로 나타나, 중요도와 과제수행의 우선순위에 다소간 괴리현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순위 상위 10개 실행과제만을 피쉬본차트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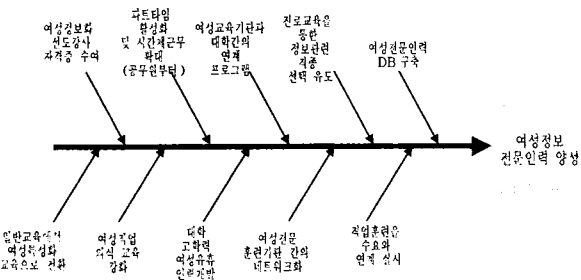
<그림 3> 여성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 실행과제의 피쉬본 차트

3) 여성정보전문인력양성

여성 정보전문인력 양성과제에는 <표 10>과 같이 모두 21개 세부 추진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중 다음과 같은 세부과제들은 여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수를 얻었다.

- 여성전문인력 DB 구축
- 직업훈련을 수요와 연계하여 실시
- 진로 교육을 통한 정보 관련 직종 선택 유도
- 여성 전문 훈련 기관간의 네트워크
- 여성 교육 기관과 대학간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이들 과제들은 여성정보 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슈들로서 세부적인 교육과정의 개발이나 운영에 앞서 조속히 정비되어야 할 것들이다. 이에 반해 여성 CIO 홍보라든가 여성할당제 등과 같은 역할별을 유도하는 추진과제들의 순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여성정보전문인력 양성 과제의 피쉬본 차트

<표 10> 여성 정보전문인력의 양성 과제의 분석결과

번호	세부과제명	중요도의 평균	중요도의 랭킹	우선 순위의 가중치 평균	우선 순위 랭킹
1	파트 타임(프리랜서) 활성화 및 시간제 근무확대 - 공무원부터	3.8	3	9.68	7
2	여성정보화 취업알선기구 설치	3.52	8	7.92	10
3	수요와 연계한 직업훈련 실시	3.8	3	12.24	2
4	여성전문인력 DB 구축	3.8	3	13.08	1
5	구인구직 사이트 활성화 (노동부의 취업 사이트와 연계)	3.32	13	7.8	12
6	공공기관 여성 할당제 (과학기술처)	3.4	11	6.4	16
7	대졸 고학력 여성유망인력개발	3.84	1	10.32	6
8	정보통신과에 여학생 할당제	3	18	5.42	18
9	여성 CIO 양성(여성정보관리자 양성프로그램)	3.36	12	7.44	13
10	타 계열 여학생의 정보통신 분야 전환을 위한 교육	3	18	6.48	15
11	여성 회귀 직종에 대한 여성 할당제	2.76	21	3.4	21
12	진로 교육을 통한 정보 관련 직종 선택 유도	3.72	7	11.36	3
13	정보통신 해외장학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여성 할당제 도입	3.24	14	5.2	19
14	여성 단기 직업 개발 프로그램 개발	3.24	14	8.28	8
15	여성 직업 의식 교육 강화	3.24	14	8.28	8
16	전문적 강사 육성	3.52	8	7.88	11
17	여성정보관련벤처 CEO 홍보	3.24	14	5.64	17
18	여성 CIO 홍보 유도	2.92	20	4.08	20
19	여성 전문 훈련 기관간의 네트워크	3.8	3	10.64	4
20	여성 교육 기관과 대학간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3.83	2	10.63	5
21	텔레워크 활성화	3.42	10	6.83	14

VI. 결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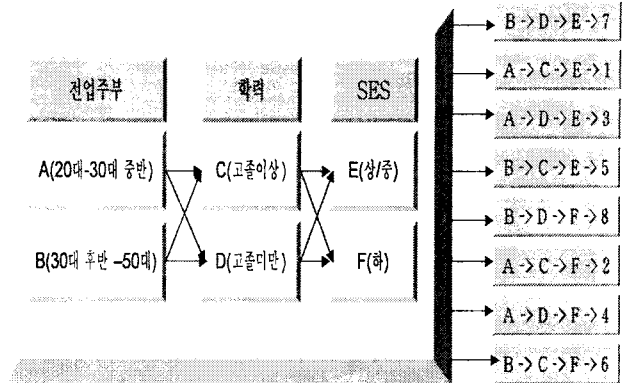
여성정보화에 대한 요구는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거니와 여성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삶을 개척하거나 전기(轉機)를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여성정보화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여성(잠재적 여성 포함)을 대상으로 하나, 예컨대 교육정보화, 직장인정보화, 소외계층정보화, 지역정보화, 농어업인정보화, 노인정보화 등과 같이, 국가가 정보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경우 이러한 정보화의 혜택을 공유하되, 여성정보화는 여성만을 위한 정보화의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핵심 대상을 선정하고 그들의 개별적, 집단적 요구를 수렴,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정보화를 통해 여성의 삶이 어떻게 질적으로 변화, 개선될 수 있는지, 그 구체적 방법을 거시적, 미시적으로 탐색해본 본

연구는 여성정보화가 여성의 범주를 기초로 차별화된 전략적 접근이 전체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결론적으로 <표 11>과 같은 처방적 전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표 11> 여성 정보화의 처방적 전략

분 류	여성정보화 추진방향	여성정보화의 처방적 전략
초중고생	교육정보화	정보생산자/정보전문가로 육성가능
여대생/대학원생	대학문화 및 교육의 제 활동을 통한 정보화	정보생산자, 정보전문가로 안내 정보생산활동의 필요성 주지
직장인	직장정보화	정보생산자, 정보전문가
60대이후	노인정보화	정보 리터러시 교육 새로운 사이버환경의 경험 및 개척



<그림 5> 여성의 범주를 기초로 한 차별화 Guidance Road Map

□ 접수일 : 2002년 1월 15일
□ 심사완료일 : 2002년 4월 12일

이는 다양한 요구를 갖는 다수의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 빈번히 제기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또, 이러한 요구가 반영됨으로써 기초적, 확립적으로 제공되기 쉬운 프로그램들을 다양화하며, 여성이라는 특정 대상의 특성을 반영하고, '정보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준차를 수렴하기 위한 처방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잠재적 여성인 초중고여학생은 국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교육정보화를 통해, 60대 이후의 노인들은 노인정보화를 통해, 여성장애인이나 재소자는 장애인정보화교육 및 재소자 정보화교육을 통해, 직장여성은 직장정보화를 통해 정보화의 과정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며 기본적으로는 전 국민 정보화 및 소외계층정보화 프로그램에도 동참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정보화는 국가 정보화의 기본 흐름인 정보격차 해소에도 지속적 관심을 갖되, 여성인력이 '정보화'라는 도구적 과정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집중적이고 전문화된 노력이 차별화되어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처방적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그림 5>의 Guidance Road Map과 같은 도구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5>에서 어떤 20대에서 30대 중반의 여성(A)이 대학을 졸업하고(C) 사회경제적 수준이 중(E)이라고 판단된다면(Path 1에 해당), 이 여성은 비교적 정보화가 용이한 집단에 해당되나 단지 정보화의 동기부족으로 정보소외집단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이러한 여성(또는 여성집단)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동기유발과 정보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 그림은 주력 대상을 구분하고 그 대상에 따라 다양화되고 특성화된 처방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부각시키고자 제시한 것이다. 앞으로 여성정보화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연구할 때에는 대상집단의 구체적 요구를 파악한 뒤 Path별로 특징있는 추진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교정 외(1999). 여성단체 정보화방안마련을 위한 기반구축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아태여성정보통신센터.
 김성태(2000). 우리나라 첨단정보산업단지 활성화 모형과 전략 요인 분석연구: 외국사례의 Fish-bone Analysis. 한국정책학회보 9(2), 237-265.
 서영숙(1998). 여성단체의 정보화 현황 및 과제. 한국여성정보원. available at http://www.feminet.or.kr/index_kor.htm
 여성특별위원회(2000). '99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사업보고서.
 여성특별위원회(2000). 여성정보화 전문가 워크숍 자료집.
 여성특별위원회(1999). 1999 여성백서.
 양순애(2000). 지식정보사회에서 여성정보화의 의미와 정책과제. 정보화저널 7(2). available at http://www.nca.or.kr/main/nca_main.htm
 유희림, 이영애(1998). 정보화의 진전이 여성의 역할 증대와 지위 향상에 미치는 영향. 정보통신부 연구보고서.
 윤정로(1999). 한국의 정보화와 전업주부. 정보화저널 6(2). available at http://www.nca.or.kr/main/nca_main.htm
 정숙경(2000). 독일의 여성정보화사례와 정책적 함의. 정보화저널 7(2). available at http://www.nca.or.kr/main/nca_main.htm
 정재영외(2001). 정보통신 인력양성 사업 2000년도 성과분석. 성균관대학교 IT경영연구센터.
 한국전산원(2000).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여성정보화 방향과 전략. 정보화저널 7(2), 7-24.
 한국전산원(2001). 2001 국가정보화백서.
 한국전산원(2001). 2001 한국인터넷백서.
 한국정보문화센터(1999). 국민생활정보화실태 및 정보화인식조사.
 한국정보문화센터(2000). 2000 정보생활실태 및 정보화인식조사.
 한국정보문화센터(2001). 2001 국민 정보생활 및 격차 현황.
 Bender, D.(1993). A strategy for international information policy. Libri 43(3), 210-231.

Cartir, T.J.(1993). *Principles and practices of TQM*. Milwaukee: Wisconsin ASQC Quality Press.

Chang, R.Y., & Niedzwiecki, M.E.(1993). *Quality improvement series: Continuous improvement tools*. Irvine, CA: Richard Chang Associates, Inc.

Greenbaum, J.(1994). Windows on the Workplace: The Temporization of Work. In A. Adams et al.(eds.), *Women, work and computerization: Breaking old boundaries-building new forms*. Amsterdam: North-Holland.